

가을색이 느껴지는 가야금 선율 속으로

30일 전북가야금연주단 열다섯번째 정기공연

유난히 덥고 길었던 여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아침·저녁으로 가을색이 느껴지는 계절변화의 접점에서 다채롭고 화려한 선율의 가야금 연주회가 마련돼 국악 팬들을 찾아간다.

호남권에서 최초로 개설돼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우석대학교 국악과 출신이 주축을 이룬 전북가야금연주단(단장 박희전 박사)의 열다섯번째 정기공연이 30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길 위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공연은 모두 6섯 마당으로 꾸며져 국악팬들을 만나는데 그 첫 번째는 박 단장을 비롯한 11명의 가야금 합주단원이 김동현의 장구에 맞춰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로 문을 연다.

이어 두 번째 마당은 유현정, 최혜빈, 장서령, 정해성 등 4명의 단원이 25현

가야금으로 '4대의 가야금을 위한 신몽금포 타령(강성오 작곡)'을 다채롭고 화려하게 연주한다.

세 번째 마당은 25현 가야금 김정은, 정악가야금 김영우, 해금 오정무, percussion 박종석 유인환 등 5명의 연주자가 한국음악과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남미 에콰도르 전통음악류인 '흙으로 빛은 향아리(강술일 작곡)'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해 이색적으로 연주한다.

12현가야금 이지은 정희인 장영희 최혜빈 양주희 김영우, 타악 박종석 유인환 등 모두 8명의 단원이 팀을 이룬 네 번째 마당은 우리에게 익숙한 천안삼거리를 변주한 '가야금 삼중주'를 위한 천안삼거리 변주곡(이지연 작곡)을 다양한 리듬과 장단을 통해 구성되고 흥겹게 들려준다. 25현가야금 황선미



채수연 김정은 이미리, 타악 박종석 유인환 등 6명의 단원은 채근담을 곡으로 승화시킨 '바람이 울리는 정원(김혜란 작곡)'이라는 곡을 선율적, 화성적으로 조화시켜 마치 가야금의 울림

소리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도록 연주해 다섯 마당으로 내놓는다.

여섯 번째 마당은 25현가야금 이지은 채수연 유현정 이미리 황선미 정해성 양주희 정희인 등 8명의 연주자가 평소 도움을 주고 받은 우리 누군가에게 헌사하는 '키 큰 나무숲(류형선 작곡)'을 주제로 가야금 합주곡을 연주하며 이날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정기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한 박희전 단장은 "모든 단원들이 땀 흘려 준비한 이번 정기공연이 불발더위에 지친 이 지역 국악팬들에게 한줄기 소나기와 같은 청량감을 안겨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곡을 준비해 뛰어난 기량으로 연주회를 마련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초대로 열린다. 공연관련 문의 010-8919-1519. /정해은 기자

'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 26일 군산 개최

'제26회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 대전'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제1·2·3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사)새만금서예문인화진흥회(회장 이광석)가 주최하는 서예문인화 대전은 현대 서예·문인화의 참신한 인재 발굴과 문화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에서 출품된 현대서예, 문인화, 조각, 서각 등 326점 작품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230여 점이다.

또한 27일 오후 3시 군산예술의전당 제1전시실에서는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FALLing in JEONJU'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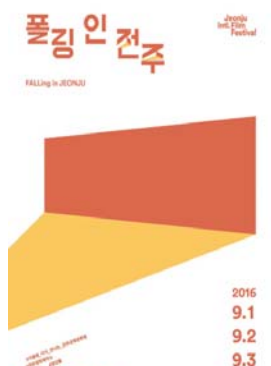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1일~4일 17회 전주국제영화제 주요작들을 재상영하는 '2016 FALLing in JEONJU' 행사를 전주영화제 작사와 남부시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일상적으로 전주 시민, 관객과 소통하고 지역 영화문화를 풍요롭게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된 것으로 프로그램은 총 10개 섹션, 37편의 상영작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전쟁 수상작,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수상작, 관객이 뽑은 Best 3 등 주요 수상작과 관객 추천작을 선보인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와 전주프로젝트마켓 선정작 중 17회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를 재상영하는 '전주 시네마', 전주, 전북 지역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작품으로 구성된 '메이드 인 전주',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하늘정원에서 상영되는 음식 영화 섹션 '남부시장 영화마켓'은 전주의 정체성이 부각되는 프로그램들이다.

특별히 온라인 관객 투표를 통해 선정된 세 편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관객이 뽑은 Best 3', 올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야외상영 상영작인 <미국에서 온 모리스>와 <리브 어게인>을 상영하는 '야외상영',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6' 선정작 등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화제작들이 포진해 있어 영화제 기간에 아쉽게 관람을 놓친 관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영화 <올드보이>의 제작과정에서 벌어진 뒷이야기를 재구성한 다큐멘터리 <올드 데이즈>와 <올드보이>를 함께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올드보이 2016', 전국독립애니메이션포럼 모임에서 추천한 세 작품으로 구성된 '예술영화관 특별선' 섹션을 배치하여 프로그램에 다채로움을 더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데뷔콘서트

신진음악가 발굴 목적

전주시립교향악단은 25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데뷔콘서트'를 연다.

이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신진음악가들을 발굴·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무대에는 반준혁, 이수민, 장수영, 송여진이 공식데뷔 인사를 한다.

피콜로리스트 반준혁은 전북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며, 원광대학교 음악 콩쿠르 관악부문 최우수상과 전북대학교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은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이번 무대에서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 가단조, RV.445>를 연주한다. 이탈리아어로 '작은' 뜻을 가진 피콜로는 플루트보다 1옥타브 높은 음역을 소리 내는 악기이다. 피콜로는 너무 높은 음역 때문에 독주 악기로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절반 없다. 작곡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비발디가 4곡의 피콜로협주곡을 작곡했다. 그 중 C장조 RV.443이 빈번하게 연주되며 이외에도 A단조 RV.445, C단조 RV.440, C장조 RV.444가 있다.

바이올린리스트 이수민은 서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포네클레식과 구리시 교향악단 콩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그녀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를 연주한다. 이는 차이콥스키가 1878년 결혼식 달 만에 파경을 맞은 후 그 상처를 달래기 위해 요양 차 머물렀던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작곡한 곡으로 광포한 리듬과 열정적인 끝맺음 등 러시아만의 독특한 민족 색채를 감상



할 수 있다.

소프라노 장수영은 영국왕립음악대학 석사 졸업으로 포네클레식전국음악콩쿨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그녀는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와 스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중 '만일 내가 순진한 시골처녀였다면', 조지훈의 시에 곡을 붙인 윤이상 <고풍의 상>을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송여진은 이화여자대학교원 음악학부 석사를 졸업했다. 한음음악콩쿠르 협연부문과 그린챔버오케스트라 콩쿠르 피아노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무대에서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다장조, 작품.26을 선보인다. 이 협주곡은 피아노의 화려하고 현란한 기교가 돋보이는 곡으로 역동적인 음향을 감상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281-2748, 274-8641. /정해은 기자

“‘채식주의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

독일 언론 호평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다.”(프랑크푸르트 툰트사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가가 쓴 소설을 읽기 시작할 때 첫 몇 문장만 보고서도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의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예감되는 책이 아주 가끔 있다. ‘채식주의자’는 바로 이런 책이다.”(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퐁)

“190쪽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은 카프카의 ‘변신’을 생각나게 한다. 카프카의 책과 마찬가지로 독자는 ‘채식주의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어렵듯이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이 책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유이다. 특히 사회가 인간을 정상적인 삶이라 불리는 범주에 맞춰 넣을 때 생기는 폭력에 대한 비유이다.”(슈피겔)

이달 중순 독일에서 출간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한 현지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독일의 대표적인 주간지 ‘슈피겔’과 주요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퐁’, ‘프랑크푸르트 툰트사우’, ‘타게스슈피겔’은 물론 라디오와 텔레비전까지 ‘채식주의자’를 주목했다.

타게스슈피겔은 “삶보다 훨씬 큰 한강의 소설은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수잔 손타그의 ‘메타포로서의 질병’에 대한 탁월한 문학적 성취”라고 소개했다.

라디오 방송 ‘도이칠란트라디오 쿨투어’는 “식물적 저항과 전복적 감성으로 가득

찬 이 작품은 자기 인식의 의무와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지킬 권리를 옹호하며 꿈꾸며 반항할 용기를 불러 넣어주고 있다”고 평했다. ‘북독일방송’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집요하게 마음을 파헤치는 소설”이라고 했다.

독일의 공영 방송 ‘체데에프’(ZDF)는 오는 28일 방송되는 문학 토론프로그램 ‘문학 사중주’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올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후보였던 이탈리아 작가 엘레나 페르테, 2009년 풀리처상 수상작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올해 ‘너겔스’로 미국에서 주목받은 엠마 클라인의 작품과 함께 다룰 예정이다.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문학 토론 프로그램은 작품이 소개되는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채식주의자’는 번역자 이기향 씨의 번역역으로 독일 베를린 아우프바우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이 출판사는 현재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가장 상단에 ‘채식주의자’를 띄워놓았다. 또 출판 이전부터 온라인 독서 클럽 등의 사이트에 작품 발췌본을 제공,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왔다.

아우프바우 출판사는 1945년 설립된 이래 브레히트, 카프카, 릴케 등 독일의 대문자 작가뿐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 등 세계 문학의 거장들을 출판하는 독일어권의 저명 출판사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해은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25일>

▷쥐띠
46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불화를 조심하라.
60년생: 문서운이 좋으니 계약 건을 진행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는 운이다.
84년생: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운.

▷소띠
49년생: 동기간과의 불화로 어려움이 따르는 운.
61년생: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야 문제가 없다.
73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고생을 덜 하는 방법임을 잊지 말자.
85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진행하라.

▷호랑이띠
50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선배나 손윗사람을 찾아가라.
62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긴다.
74년생: 겉으로는 화려해보이나 실속이 없을 수 있는 운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슬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

▷토끼띠
5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은 있으나 큰 해는 없다.
63년생: 일적인 능력이 올라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75년생: 횡재수가 들어오니 금전 거래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겠다.
87년생: 식욕이 있으니 모임을 갖거나 식사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운.

▷용띠
5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수가 따르다.
64년생: 사람들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76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88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6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운.
77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89년생: 동기간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일을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말띠
54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운.
66년생: 순간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78년생: 한니를 잃으면 돌을 얻을 수 있는 운.
9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
67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91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뤄라.

▷원숭이띠
56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68년생: 평소 애용했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
80년생: 평소 애용했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으니 무리하지 말아야 하는 운.

▷닭띠
57년생: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어려운 운.
69년생: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불화 예상.
8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93년생: 건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운.

▷개띠
4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따르다.
58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슬수에 휘말린다.
7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82년생: 크게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라.

▷돼지띠
47년생: 가정에 좋은 기운이 들어 왔다.
59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고 재능 발휘가 잘 되는 운이 있다.
71년생: 사소한 것에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
83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